

자연의 만물은 영원법에 종속되어 있다. 인간은 영원법에 특별한 방식으로 따른다. 즉, 인간은 신이 심어 놓은 본성의 법칙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영원법의 섭리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신의 섭리에 의해 창조되었으면서 동시에 신의 섭리에 따라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영원법에 대한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 아퀴나스, "신학대전" -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궁극적 근거가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신적 지혜의 이념, 즉 영원법이며,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아닌 자연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연법의 공통적인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으며, 자연법의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도덕 규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Q1. 의무론적 접근

* 자연법 윤리(아퀴나스) / 칸트 윤리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이 존재함, 우리의 행동이 법칙을 따르면 옳은 것!

1> 자연법 윤리(아퀴나스)

- 영원법 : 신의 섭리,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신의 지혜



- (^{자연법}) : 모든 인간에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법(불문성, 보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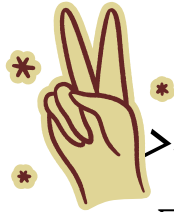


- 실정법 : 현대 사회의 구체적인 법률

***자연법의 제 1원리 :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하})

인간 본성의 자연적 성향 (^{자기보존}), (^{종종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권리파악)

⇒ 자연법적 권리 도출(존엄성, 양심의 자유, 생명의 불가침성, 만민평등)



> 칸트의 의무론

- 도덕성의 판단 기준(결과보다 **동기** 강조)
- only (**선의지**)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자연적 경향성* *** = [감각적 영역] / vs [지적 영역] = '이성'

-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본능) 즉, 고통을 싫어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이며 이것은 자연법칙에 지배를 받음.



But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 행위란?

-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선의지와 실천이성에 입각하여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함. 반드시 따라야함! (**의무**)

- | | |
|-----------------------|------------------|
| ① 오직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 ④ 실천이성의 명령. |
| ②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 ⑤ <u>선의지의 지배</u> |
| ③ 의무의식, 실천이성에서 비롯된 행위 | |

1-2>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란?

- (정언명령) :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선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도덕적 명령

***정언명령과 관련된 형식, 법칙

- 1> 보편주의 = 주관적 행동원리 모두에게 확대 적용!
-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라

2>인격주의

-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고,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하지 마라

+X All 준칙은 보편화 가능 O.X?

Q2. 공리주의적 접근

* 양적 공리주의(벤담), 질적 공리주의(밀) / 규칙 공리주의

- 동기보다 **결과** 중시(—) → **행위의 유용성** → (**사회적 유용성**)으로 확대.
- 인간은 누구나 쾌락은 (**선**)이며 고통은 (**악**) → (**행복**)이 삶의 목적임! [**행복총량 극대화**]
- (**공리의 원리**) → 행복의 총합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 **최대다수 최대행복** >

2-1>공리주의 대표적 사상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 쾌락의 (**양적**) 차이만 강조 / 모든 쾌락은 양적 계산이 가능함(기준 존재)

밀의 질적 공리주의

- 쾌락의 (**질적**)도 강조함 (**양적 차이 0, 질적 차이**)
- 정신적인 쾌락(고상한 쾌락)을 선호함
- 쾌락의 비교기준 : 모든 쾌락(육체적, 정신적)을 경험한 사람이 판단 가능



2-2>행위 공리주의 vs 규칙 공리주의

- 행위 공리주의 : (**유용성**)의 원리를 개별적 행위에 적용

*문제점 : 행위 결과의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행위마다 계산되어야 한다.

- **규칙 공리주의** : 옳은 행위란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는 행위이다.
즉, 규칙을 지켰을 경우에만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규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일반적 선을 가지고 오는지에 따라 규칙이 결정된다.

(4)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① 행위 공리주의: **유용성의 원리**를 '개별적 행위'에 적용하여 개별적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이나 행복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함

② 규칙 공리주의: **유용성의 원리**를 '규칙'에 적용하여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지 판단한 후, 그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봄

Q3. 덕 윤리적 접근(메킨 타이어)

- 배경 : 도덕 법칙, **원리**만을 강조하는 <근대 윤리 비판(의무론, 공리주의)>
 ***인간의 **도덕성** (내면의 도덕적 성품),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주장함

- 특징 : 1) 행위자 중심(행위 원리가 아닌) ⇨ 성품, 덕성 강조
 2) 자연적 감정과 (**동기**) 중시, 도덕적 (**성품**) 중시
 3) 관계, 상황 중시 : 도덕판단은 구체적, (**맥락적**) 사고를 반영해야 함
 4) (**공동체주의**) : 합리적인 개별적 존재보다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중시
 +α [후천적인 '덕' 습득 강조]
 [서사적 자아, 실존적 자아]

심화****아리스토텔레스의 "덕" (**Arete**)

인생의 목적 : (**행복**) /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을 (**행복**)이라 함.

덕이란? (**지성적 덕**) + (**품성적 덕**)

1. 철학적 지혜

2. 실천적 지혜

↳ *반복 습관화

- 17 칸트에 따르면, 자연적 경향성은 인간 행위 또는 준칙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도덕적 행위 또는 도덕 법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18 칸트에 따르면,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가치를 지닌다.
- 19 칸트에 따르면, 이성온 인간 존엄의 근거이자 도덕적 행위의 동기이다.
- 20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정언 명령이다.
- 21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은 이성적으로 인식 가능한 보편적인 법이다.
- 22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으며, 영원한 행복은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실현 가능하다.
- 30 칸트에 따르면, 지성, 용기, 끈기, 결단력과 같은 기질들은 그 자체로 선하다고 볼 수 없다.
- 31 칸트에 따르면, 행복함은 모든 이성적이며 유한한 존재들의 필연적 욕구이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
- 32 칸트에 따르면, 실천 이성을 지닌 존재가 보편화 가능한 준칙만 따르는 것은 아니며,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 33 칸트는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지만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음을 강조한다.

23

밀은 희생 그 자체를 곧 선이라고 보지 않지만, 행복 총량을 증가시키는 자기희생은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24

공리주의 사상에서는 도덕이 그 자체로서 선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25

공리주의 사상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이 동등하게 간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26

칸트와 공리주의 모두 옳은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있다고 본다.

27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모두 도덕 판단에 있어 행위의 유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28

행위 공리주의는 도덕적 상식이나 직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29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가 따르고 있는 규칙의 결과를 옳은 행위의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34 매킨타이어는 합리적 이성을 통해 추상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것보다 공동체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서, 공동선 실현을 위한 노력 없이는 유덕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선인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36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성의 역할은 감정과 욕구를 적절히 인도하는 것이다.

37 공리주의와 현대 덕 윤리 모두 자신이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도덕적 실천이 가능하다고 본다.

38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인간은 특수한 사회적·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이며, 덕은 사회적 실천 또는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인간의 성품이다.

39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공동체는 단순히 개인들의 결합이 아니라 구성원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

40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1 밀은 정상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적 교양이 뒷받침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고 본다.